

“자연특별시 무주로 오세요”

무주방문의 해 맞아 2~4월 지역 상권 연계 관광지 할인 이벤트 진행

무주군이 '2024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를 맞아 1일부터 지역 상권과 연계한 관광지 할인 이벤트(2~4월 3개월간 한시적 운영)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무주군 2024년 무주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무주군은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반디랜드와 머루와 인동굴을 방문해 안내 모든 상가(음식점, 카페, 숙박시설, 마트 등)에서 결제한 총 10만 원 이상의 영수증을 인증하면 입장료를 50% 할인(최대 2인까지)해준다.

여행사를 통해 방문하는 단체 관광객들에게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숙박업소와 무주군 지정 관광지(무로 덕유산국립공원 등 8곳, 유료 반디랜드 등 6곳), 음식점 또는 농촌체험휴양마을(6개 읍면 19개 마을) 이용 조건(무주군 고시공고 "단체관광" "인센티브" 검색)을 충족한 단체 관광객에게는 1인 5천 원(30명 이상 초·중·고 수학여행, 숙박업소 1박 이상, 음식점소 3회 이상)~차량 1대당 입차비 최대 50만 원(숙박업소 1박 이상, 지정 관광지 총 4곳 α 농촌체험휴양마을 숙박, 체험1, 음식점소 3회 이상)의 비용을 지원한다.

당일 이용(지정관광지 2곳 이상, 음식점소 1회 이상, α 농촌체험휴양마을



무주군이 '2024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를 맞아 1일부터 지역 상권과 연계한 관광지 할인 이벤트(2~4월 3개월간 한시적 운영)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무주군청 제공>

체험 1, 음식점소 1회 이상)단체 관광객들에게는 차량 1대당 입차비 30만 원을 지원한다. 무주군청 관광진흥과 장기진 관광정책 팀장은 "자연특별시 무주의 매력을 이벤트 상품으로 더욱 알릴하고 풍성하게 즐겨 보시라"며 "무주가 자랑하는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가 여러분의 무주 여행을 만족스럽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반디여행권(11,900원 36시간)과 전북투어패스(5,900원 24시간 / 1만 2,900원 48시간 / 1만 8,500원 72시간)도 전북투어패스 홈페이지와 온라인

쇼핑몰(네이버, 쿠팡, 11번가, g마켓 등), 무주관광안내소에서 판매한다. 머루와인동굴(이용요금 2,000원)과 반디랜드 곤충박물관(5,000원), 반디랜드 천문과학관(3,000원), 무주목재문화체험장(3,000원), 태권도원(1만 4,000원)을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머루와인동굴과 반디랜드 곤충박물관, 반디랜드 천문과학관 무료입장 혜택과 함께 무주목재문화체험장에서는 우드마그넷 만들기 체험과 태권도원 입장료 및 모노레일, 체험관(반디여행권 단독 혜택)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방문의 해 관광활성화 방안 제안

문은영 무주군의회 의원



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라며 "무주군의 관광자원을 볼 때 행정의 관심만 있다면 사업공모에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4 무주방문의 해를 맞아 반디랜드 곤충박물관, 천문과학관, 머루와인동굴 등 무주군이 운영하는 유료 관광시설에서 1+1 정책을 시행하고자 제안했다. "민간 숙박시설이나 음식점,

스키대여점, 시장 등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유료 관광지에 입장할 때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방문객 만족도 상승은 물론 소상공인에게도 보탬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문은영 의원은 또한 화천 산천어축제를 언급하며 지역관광과 축제를 무주사랑상품권과 연계해보자고 제안했다. 그는 "화천 산천어축제에서는 얼음낚시, 눈썰매 등 각종 체험비의 40~6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제공한다"며 이러한 정책들을 벤치마킹해 무주군에 적용해보자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은영 의원은 "1천만 관광객 유치와 무주방문의 해 성패는 공직자들의 창의적 아이디어에 달려 있다"며 관광정책의 적극적 발굴과 실행이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5분 발언을 마쳤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생애주기별 자녀지원정책 확대

진안군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가족친화형 도시를 표방하며 2024년 기준 생애주기별 자녀지원정책을 한눈에 알아보기 위한 포스터를 제작하고, 배부에 나섰다.

군에서 출산하고, 대학교 졸업 시까지 키울 경우 지원되는 직간접 지원금은 국도비 지원 사업, 순 군비사업 포함해 1억 2,900만원이라고 밝혔다.

군은 군청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한 장에 담은 포스터를 SNS 홍보는 물론 관내 주민, 농촌 유학을 통한 교육 귀촌자까지 놓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각종 회의 및 사업 추진 시 홍보할 계획이다.

진안군 대표 자녀지원정책은 ◆임신·출산 분야 884만원(△임신축하금 100만원) △출산장려금(첫째아 300만

원, 둘째아 500만원, 셋째아 이상 1,000만원) △출산부 산후조리비(1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74만원)을 비롯해 ◆영유아 기간 2,989만원(△부모급여(1,800만원) △아동수당(960만원) △친환경급식지원(187만원)), ◆초등학생 1,476만원(△청소년 드림카드(180만원/월 3만원) △스마트 체험(192만원/연 10회) △주말 스포츠데이(400만원/승마, 골프, 불꽃, 테니스, 야구 등) △영아인재스쿨(200만원/화상영어 등) 등이다. 또한 ◆중학생 대상 2,123만원(△해외역사탐방(중2학년 150만원) △청소년 드림카드(108만원/월 3만원)) ◆고등학생 대상 1,629만원(△현장학습비 및 교재지원비(36만원) △청소년드림카드(180만원/월 5만원))는 물론 ◆대

학생은 3,800만원(△장학금(최대 3,200만원/연 2회 최대 400만원/타장학금 수령시 잔여금만 지원) △생물안정비(400만원/연 1회 10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진안군은 이와 함께 농촌 고령화와 과소화 해소 극복을 위한 혁신적 해법을 찾기 위해 지난해에는 진안군수와 교육장이 9개 면을 순회하며 개최된 '작은학교 살리기 간담회'에 함께 참여해 학부모, 학교, 기관사회단체 등에서 총 66건의 현장의 소리를 들었으며 이를 정책에 반영해 자녀 교육으로 인해 진안군을 떠나지 않도록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들을 마련할 계획이다. 진천선 군수는 "군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며 인구 소멸의 해법을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설 명절 앞두고 온정의 손길 이어져

전북은행 등 사랑의 선물 전달



푸러미 100상자(300만원 상당)를 진안군에 전달했고, (사)푸드레장에인 협회와 젊은농업인 연구회(회장 이종진)가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선물 나눔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진안군은 지난날 31일 군수실에서 전춘선 군수와 전북은행(부행장 전상익), (사)푸드레장에인협회(협회장 하태복), 젊은농업인연구회(회장 이종진), (주)슬라파르에너지(대표 윤근성)가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선물 나눔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북은행은 겨울철 사회공헌사업으로 총 10종의 생필품으로 구성된 선물

어 올해도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주)슬라파르에너지에서는 올해도 선물세트(70개, 120만원 상당)를 후원해 주며 사랑을 전해 명절을 앞둔 어려운 이웃들에게 풍성한 마음을 함께 전달했다. 전달된 후원물품과 성금은 관내 복지사각지대 등 저소득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전춘선 군수는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을 위해 성금과 후원 물품을 후원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은 우석대학교, 관내 유통 주체(장계농협)와 함께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송주읍 장수 부군수를 단장으로 몽골 울란바토르를 방문했다.

농축산물 수출 확대 몽골 방문

장수군·우석대·유통주체, 홍보·우호 교류 등 진행

장수군은 우석대학교, 관내 유통 주체(장계농협)와 함께 지난날 27일부터 30일까지 송주읍 장수 부군수를 단장으로 몽골 울란바토르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장수한우, 장수소주 등 농축산물 런칭 행사 개최와 몽골의 대표적 유통업체인 CassTown LLC, KGC LLC, LS Trading과의 향후 국제교류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연석회의, 항울구청과의 우호도시 체결을 위한 사전협의 및 몽골 국립생명과학대학교와의 사전 간담회를 위해 진행됐다. 몽골 방문단은 27일 장수 한우를 비롯 한우 전문레스토랑인 '장수아늘소(Jangsu Steak House Restaurant)'에서 장수군 농축산물의 우수 점점 고객을 대상으로 행사를 진행, 방문객들로 부터 큰 호평을 받으며 장수 농축산물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29일 오전에는 장수군, 유통주체(장계농협) & 카스타운, KGC, LS트레이딩과 몽골 수출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2023년 결산과 2024년 계획을 공유하면서 향후 대책을 위한 활발한 논의와 함께 한우와 사과 중심 품목의 생육·생과에 이은 몽골인 맞춤형 농축산물 가공품 생산과 K-푸드

유행과 관련 성장 가능성이 높은 상품 개발과 마케팅 방법을 협의했다. 29일 오후에는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의 중심구인 항울구청을 방문하여 장수군과 MOU체결을 위한 사전미팅을 가졌, 송주읍 장수 부군수와 체렌항울 부구청장은 올해 하반기 예정으로 한 지자체 간 우호교류 협약 추진을 위해 실무단을 구성하기로 하고 △스마트팜 △도시숲 조성 △관광교류 △스포츠 교류 △친환경 사업 등 공동의 관심사항을 공유하며 미래의 발전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사전 초석의 자리를 마련했다. 또 몽골 국립생명과학대학교 수의과 대학을 방문하여 축산 관련 기술적·인적 교류, 반려동물 제약 및 바이오 연구 교류 등의 주제를 공유하며 지자체와 대학 간의 향후 교류를 위한 사전 간담회도 진행했다. 이번 몽골방문 단장을 맡은 송주읍 부군수는 "이번 몽골 방문은 장수군 농축산물 수출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상호 간 소비자 응대형 제품개발의 필요성을 공감해 내수뿐 아니라 수출용 농산물의 품위유지와 고령 만족 서비스를 강화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최훈식 장수군수, 설 명절 앞두고 사과 수급 상황 점검

최훈식 장수군수가 지난날 30일 설 명절을 앞두고 장수사과 원예농협과 장수농협농조합을 방문해 사과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살폈다. 현장에서는 최연수 장수사과원 예농협(원예농협) 조합장과 전대호 장수농협농조합법인(신농) 대표가 사과 수급 상황 및 유통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원예농협은 지난해 사과 8,000톤을 취급해 도매시장(공관장 등)으로 출하하여 63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신농은 사과 60톤을 취급해 장수물, 우체국 등 소규모를 통한 직거래로 25억 원의 매출 실적을 달성했다. 최연수 조합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105톤의 물량을 확보해 장수 사과가 설 명절 전까지 안정적으로 출하하도록 장수사과 공급에 힘쓰겠다"고 말했고 전대호 대표는 "소비자들에게 품질 좋은 장수 사과를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사용자 현장 간담회

장수군은 지난 30일 군민회관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용자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보건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직무대행 박국열)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사회보장정보원 고객지원본부 등 22명과 주민복지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공무원 12명,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9명 등 총 43명이 참석했다. 이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행복이음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보육통합정보 △지역보건 의료정보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용자 불편사항 및 요구사항을 청취했고, 해당시스템 발전방향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최훈식 군수는 "사용자들의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해 장수군에 직접 방문해 주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불편사항 등 현장 의견을 토대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 이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읍, 전락작물 직불제 신청 추진

장수읍 장수읍은 전락 작물 직불제 신청을 동계작물의 경우 오는 3월 31일까지, 하계작물의 경우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전락작물 직불제는 202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선택형 직불제로 식량지급률 증진, 쌀 수급안정 및 논 이용률 제고를 위해 논에 전락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직불금이다. 지원 자격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농업법인 및 식량작물경영체 등이며, 농외소득이 3,700만원 미만(농업인), 작기별 전락작물재배 1,000㎡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전락 작물직불제 대상 품목·농지 확대 및 직불금 단가가 인상된다. 조용호 장수읍장은 "전락작물 직불제 확대·시행으로 쌀 수급안정과 농가 소득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직불금 단가 인상과 품목 확대도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의 스마트 테스트베드를 활용한 대추방울토마토 실증 재배가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무주군청 제공>

무주군, 스마트 테스트베드 활용 대추방울토마토 실증 재배

무주군의 스마트 테스트베드를 활용한 대추방울토마토 실증 재배가 눈길을 끌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미니할', '비엔셋노랑', '로얄블랙' 품종 1,100주를 정식하면서 재배를 시작했으며 내·외부 온·습도 조절과 작물 생육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등이 모두 가능한 최적의 환경 속에서 키워 1월 둘째 주부터 출하를 시작했다. '미니할'은 작고 귀여운 외관과 독특한 맛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실험과 실증 재배를 통해 적절한 환경에서의 재배법을 연구 중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비엔셋노랑'은 화사한 노란색과 상큼한 맛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시범 연구에서는 기존 토마토와 비교해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 유지가 가능하다. '로얄블랙'은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품종으로, 시범 연구용으로 재배되고 있으며 진한 검정의 외관과 특유의 당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실증 재배를 통해 수집된 정보들과 스마트기기 활용 및 데이터 분석 기술 등은 농업인 대상 스마트농업 기술교육에 활용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적십자봉사회 장수지구협의회, 2024 정기총회 개최

대한적십자봉사회 장수지구협의회(회장 김광순)가 지난 29일 장수군 여성문화센터에서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김광순 대한적십자봉사회 장수지구협의회 회장과 대한적십자, 박형목 행정지원과장, 전북지사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에서는 2023년 봉사활동 결과보고와 함께 올해 활동계획을 논의했고 2부는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

낭독, 봉사원 서약, 기념사, 우수봉사원 표창과 격려금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김광순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봉사를 위해 헌신하며 애써주신 장수지구협의회를 비롯한 봉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2024년에도 변함없이 사회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마다 적십자의 온정을 전달하며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